

2026년 6월

서울지역 고용동향

(자료: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)

서울고용노동청
문의: 지역협력과(2004-7954)

- ▶ 취업자(+2만명)는 1개월 만에 증가 전환
- ▶ 고용률(62.0%, +0.1%p)은 상승, 15~64세 고용률(70.2%, -0.2%p)은 하락
 - 65~69세(+2만 9천명), 70세이상(+5만명) 위주의 취업자수 증가 영향
- ▶ (청년) 고용률(46.4%, -3.8%p), 경제활동참가율(50.1%, -4.5%p) 하락(2분기)

(전년동월대비)

	취업자 증가	취업자 감소
성 별	여성(+5만 7천명)	남성(-3만 7천명)
연 령	60세이상(+6만 1천명), 30대(+2만 7천명), 50대(+2만 1천명)	청년(-8만 8천명), 40대(-1천명)
산 업	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8만 4천명), 도소매·숙박음식업(+2만명), 제조업(+6천명)	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-6만 5천명), 건설업(-2만 6천명)
종사상 지 위	자영업자(+4만 4천명), 임시근로자(+2만 5천명) 고용원 유 자영업자: +4천명 고용원 무 자영업자: +4만명	상용근로자(-3만 3천명), 일용근로자(-9천명), 무급가족종사자(-7천명)
직 업	관리자·전문가(+3만 6천명), 단순종사자(+1만 5천명)	기능원(-1만명), 서비스·판매 종사자(-8천명), 사무종사자(-7천명), 기계조작·조립종사자(-6천명)
취업시간	36시간 미만(+3만 2천명), 일시휴직자(+2만 1천명)	36시간 이상(-3만 3천명)



15~64세 고용률 추이(%)	'24.06	08	10	12	02	04	'25.06	08	10	12	'26.1	2	3	4	5	6
(천명)	'23	'24	'25.6	7	8	9	10	11	12	'26.1	2	3	4	5	6	
취업자수	891	862	825	827	802	796	781	778	773	736	742	745	731	745	738	
증감	-5	-29	-15	-17	-62	-44	-61	-52	-50	-63	-55	-55	-77	-87	-88	

전 국

서 울

(전년동월대비)

전체 인구 (주민등록)	5,109만 2천명 · 7만 3천명 감소(0.1%↓)	929만명 (전국의 18.2%) · 3만 6천명 감소(0.4%↓)
15세이상 인구	4,599만 7천명 · 25만 4천명 증가(0.6%↑)	845만 2천명 (전국의 18.4%) · 1만 2천명 증가(0.1%↑)
경제활동 인구	2,998만 8천명 · 7만 3천명 증가(0.2%↑) - 경제활동참가율 65.2%(0.2%p↓) (월) 청년층 47.2%(1.4%p↓) (분기) 청년층 47.1%(1.8%p↓)	543만 3천명 (전국의 18.1%) · 2만 3천명 증가(0.4%↑) - 경제활동참가율 64.3%(0.2%p↑) (분기) 청년층 50.1%(4.5%p↓)
취업자	2,915만 4천명 · 6만 3천명 증가(0.2%↑) - 고용률 63.4%(0.2%p↓) - 15~64세 고용률 70.2%(0.1%p↓) (월) 청년층 43.9%(1.7%p↓) (분기) 청년층 43.8%(1.9%p↓)	524만 2천명 (전국의 18.0%) · 2만명 증가(0.4%↑) - 고용률 62.0%(0.1%p↑) - 15~64세 고용률 70.2%(0.2%p↓) (분기) 청년층 46.4%(3.8%p↓)
실업자	83만 4천명 · 1만명 증가(1.2%↑) - 실업률 2.8%(0.0%p) (월) 청년층 7.0%(0.9%p↑) (분기) 청년층 7.1%(0.4%p↑)	19만 1천명 (전국의 22.9%) · 3천명 증가(1.8%↑) - 실업률 3.5%(0.0%p) (분기) 청년층 7.3%(0.8%p↓)
비경제 활동인구	1,600만 9천명 · 18만 1천명 증가(1.1%↑)	301만 9천명 (전국의 18.9%) · 1만 1천명 감소(0.4%↓)

- 경제활동참가율(%)
경기(65.7) > 인천(65.2) > 서울(64.3) > 광주(63.9) > 대전(63.8) > 울산(62.3) > 대구(60.3) = 부산(60.3)
- 15~64세 고용률(%)
경기(70.5) > 서울(70.2) > 인천(69.6) > 부산(68.9) > 대전(68.3) > 광주(68) > 울산(67.8) > 대구(65.9)
- 실업률(%)
서울(3.5) > 경기(3.1) > 대구(3.0) > 광주(2.9) > 인천(2.8) > 울산(2.6) > 부산(2.2) > 대전(2.1)
- 2분기 청년(15-29세) 실업률(%)
대구(9.9) > 인천(7.6) > 서울(7.3) > 경기(7.1) > 광주(6.6) > 대전(5.4) > 울산(5.2) > 부산(4.9)

총괄

- 고용률은 62.0%(+0.1%p)로 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고, 전국(63.4%, -0.2%p)을 1.4%p 하회
- 15~64세 고용률은 70.2%로 0.2%p 하락했고, 2분기 청년 고용률은 46.4%(-3.8%p)로 9분기 연속 하락
- 실업률은 3.5%로 전국을 0.7%p 상회했고, 2분기 청년 실업률도 7.3%로 전국을 0.2%p 상회

취업자수

- 취업자(524만 2천명, +2만명)는 증가 재전환, 65세 이상 및 임시근로자, 자영업자 위주의 증가

- 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6)-22 (7)28 (8)29 (9)9 (10)-20 (11)8 (12)-30 ('26.1)-17 (2)22 (3)70 (4)9 (5)-10 (6)20
- * (전국) 취업자수(+6만 3천명)는 1개월 만에 증가 재전환. 정보통신, 금융보험 등은 증가폭을 확대했고, 전문·과학·서비스업은 감소폭 축소하며 개선세, 보건·복지, 예술·스포츠, 운수·창고 등은 증가 지속, 중등전쟁 장기화 따른 건설업과 제조업 등은 감소 지속
- 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6)183 (7)171 (8)166 (9)312 (10)193 (11)225 (12)168 ('26.1)108 (2)234 (3)206 (4)74 (5)-40 (6)63

산업별

- 사업·개인·공공·서비스업과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은 증가세 지속, 제조업은 증가 전환
-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과 건설업은 감소폭 확대

- ▶ 사업·개인·공공·서비스업(+8만 4천명, +3.6%)은 돌봄·복지 수요 증가,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지속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6)95 (7)132 (8)102 (9)71 (10)60 (11)62 (12)36 ('26.1)27 (2)77 (3)82 (4)70 (5)62 (6)84
- ▶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(+2만명, +1.7%)은 소비심리지수 개선되며 증가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6)1 (7)-16 (8)-2 (9)21 (10)3 (11)2 (12)13 ('26.1)35 (2)19 (3)24 (4)-5 (5)15 (6)20
- * 소비자심리지수(CCSI): ('25.6)108.6 (7)110.7 (8)111.2 (9)110.0 (10)109.6 (11)112.3 (12)109.8 ('25.1)110.8 (2)112.1 (3)107.0 (4)99.2 (5)106.1 (6)106.6
- ▶ 제조업(+6천명, +1.5%)은 '25.6월(-11만 7천명)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전환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6)-117 (7)-82 (8)-45 (9)-19 (10)-10 (11)-12 (12)1 ('26.1)13 (2)13 (3)21 (4)26 (5)-4 (6)6
- ▶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-6만 5천명, -6.2%)은 정보통신분야 기채용 영향 등으로 11개월 연속 감소, 감소폭도 확대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6)10 (7)9 (8)-15 (9)-36 (10)-32 (11)-8 (12)-41 ('26.1)-62 (2)-69 (3)-54 (4)-66 (5)-60 (6)-65
- ▶ 건설업(-2만 6천명, -8.5%)은 건설경기 부진 및 건설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20개월 연속 감소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6)-5 (7)-9 (8)-8 (9)-25 (10)-38 (11)-34 (12)-36 ('26.1)-29 (2)-18 (3)-5 (4)-18 (5)-24 (6)-26
- * (전국) 보건·복지(+21만 4천명), 예술·스포츠(+5만 5천명), 운수·창고(+4만 8천명), 정보통신(+4만 7천명) 등의 증가폭 확대
건설(-6만 7천명), 도소매(-4만 4천명) 등은 감소폭 확대, 제조(-9만 7천명), 농림·어업(-9만 5천명), 전문·과학(-6만명) 등은 감소 지속

연령별

- 청년층(-8만 8천명)은 26개월 연속 감소, 20~24세(-3만 2천명), 25~29세(-5만 3천명) 모두 감소
- 40대(-1천명)는 2개월 연속 감소
- 60세 이상(+6만 1천명)은 증가폭 확대했고, 30대(+2만 7천명)와 50대(+2만 1천명)는 증가 지속

- * (전국) 청년층(-19만 7천명)은 44개월 연속 감소, 40대(-1만 9천명)는 4개월 연속 감소
60세 이상(+21만 1천명)은 증가폭을 확대, 30대(+6만 5천명)와 50대(+3천명)는 증가 지속

종사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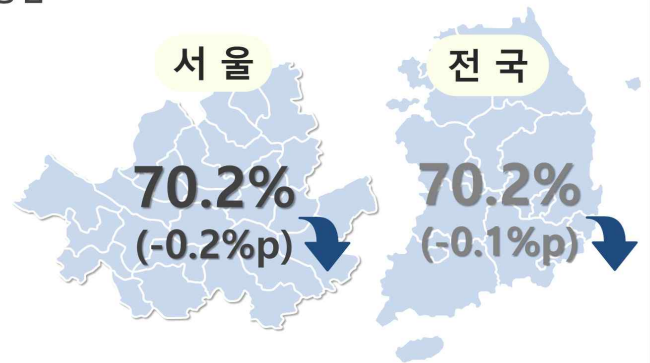
- 상용직(-3만 3천명)과 일용직(-9천명)은 감소하나, 임시직(+2만 5천명)은 증가 전환
- 고용원有(+4천명), 고용원無(+4만명) 모두 증가하며 자영업자(+4만 4천명) 증가

- * (전국) 상용직(+1만 6천명)은 증가 전환, 자영업자(+16만 6천명)는 고용원有(+9만 5천명), 고용원無(+7만 2천명) 모두 증가
일용직(-4만 5천명)은 감소 전환, 임시직(-5만 1천명)과 무급가족종사자(-2만 3천명)는 감소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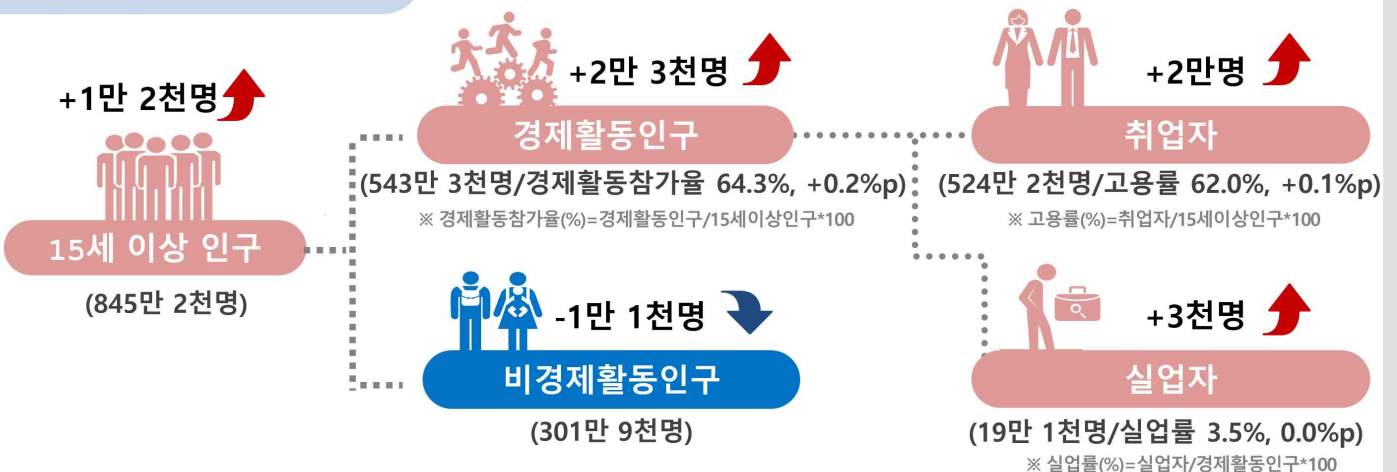


서울지역 고용동향

고용률(15~64세) OECD기준 ※ 전년동월대비 증감



경제활동인구 구조 ※ 15세 이상 기준, 전년동월대비 증감



취업자수 증감 ※ 전년동월대비 증감(률)

